번암 채제공의 명승관과 관련 저작류의 명승학적 가치

Chae jae kong's thoughts on scenic site and vaule of related works

이 원 호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won-h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요약

본 연구는 조선시대 문신 채제공의 저작류에 나타난 명승관련 내용분석을 통해 그의 명승에 관한 의식과 관점을 파악하고 저작류에 나타난 명승과 관련된 당시 현황을 명승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전래명승의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Ⅰ. 서론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을 유교문화와 결부시켜 자연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찾아 즐기는 명승문화라 할 수 있다. 유람이라는 행위를 위주로 나타나는 명승문화는 시(詩)·서(書)·화(畵)와 연계되어 예술활동의 주제로도 자주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명승은 일부 지식층의 산유물로 머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리지를 편찬하거나 부녀자의 한자학습을 위한 말놀이 주제로 까지 폭넓게 확산되었다. 조선시대는 명승문화가 중흥했던 시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특히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 한반도에는 752곳의 명승이 존재했으며 여지도서는 430개가 수록되어 있었다[1]. 이처럼 전국도처에는 명승지가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 근대에 와서는 한때 조선시대 명승이 제도권하에서 계승되는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당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요목'의 제정(1933)에 따라 명승이 문화재로 정의된 바 있으며, 1933년 당시에는 조선총독부내무국장을 중심으로 재무국장, 식산국장, 학무국장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명승고적보존위원까지 조직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명승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재정 이후 1970년에 이르러서야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면서 명승정책은 2006년 명승지정보호활성화 정책을 발판삼아 과거에 비해 괄목상대 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명승문화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들 수 있다. 현재 명승문화재의 숫자는 최근에 지정된 화순 적벽을 포함하여 총 110개소에 그치고 있다. 과거의 전래명승이 오늘날 제대로 계승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개발로 인한 개발의 여파 등 여러 환경적 요인이 있겠으나 과거 명승에 관한 기록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은 후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부흥했던 명승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주요인물인 번암 채제공의 저작에 나타난 명승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명승의 현황과 인물의 명승에 대한 인식 등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는 전래명승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번암 채제공의 번암집[2]을 통해 그의 명승관과 저작류에 나타난 조선시대 명승관련 주요특성을 추출하고자 번암집을 위주로 명승을 주제로 한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번암집의 서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한 작업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관련자료 등을 통해 비교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채제공과 번암집의 특징

번암 채제공(1720(숙종 46)~1799(정조 23))은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시호는 문숙공(文肅公)이다. 그는 정암, 퇴계선생의 뒤를 이어 정술, 허목, 윤휴, 윤선도 등의 정치이념을 받든 남인계 주류였으며 그의 후대로는 다산 정약용이 있다.

24세에 문과 급제로 정치에 입문하여 영조는 물론 정조의 절대적 신뢰를 얻어 우의정으로 10년 이상을 재임한 바 있다. '번암집'(樊巖集)은 그의 면모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문장은 산문적이고 평이한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최근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명승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이다. '번암집'(樊巖集)에는 명승을 유람하거나 정원을 감상하면서 저술한 유람기나 화원기가 유독 많다. 많은 세력가들이 경관을 조성할 때 조언을 구하고 정자의 기

문을 써 달라는 청탁이 쇄도했다.

본 연구의 재료인 번암집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시문에서부터 소차, 시, 서, 제문, 행장, 묘갈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조예가 깊었던 것을 알 수 있다(표 1). 특히 시문(詩文)에서는 그가 가진 자연관을 알 수 있고 기(記)에는 명승과 관련한 그의 태도나 당시 현상 등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

표 1. 번암집의 구성과 내용

구분	권호수	내용
시문(詩文)	59권 사륜상하 1책(30책)	설악산, 삼척, 개성 등 유람시, 서정시, 화답시
소차(疏箚)	10책20권~16책 31권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 피력
서(序), 기(記)	16책32권~ 18책 35권(17책34권~기)	여러 문집의 서와 시고서, 정자 등의 기문
서(書)	18책36권~19책36권	서한류
제문(祭文), 애사(哀辭)	19책37권~20책38권	치제문과 제문
행장(行狀), 시장(諡狀)	20책39권~22책 43권	인물의 행적
신도비명(神道碑銘)	22책44권~25책 48권	신도비의 글
묘갈(墓碣), 묘지(墓誌)	25책 49권~27책	무덤앞에 세우는 글

2. 채제공의 명승관

번암 채제공은 남인의 영수요, 사림의 영수였다. 정조를 도와 화성을 축성한 사람이며 좌의정으로 있을 때에 수원에 있는 사도세자의 능호(陵號) 영우원(永祐園)을 개호해서 현륭(顯隆)으로 삼고 그 공사를 맡는 총리사를 겸했던 적도 있다. 그는 초대 수원유수로 장용외사와 화성의 행궁을 담당하는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 자리는 군사업무 이외에도 능이나 궁의 관리업무도 담당했었다. 특히 능의 관리는 재료 등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한 관리역량이 필요로 한 것을 볼 때 그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는 실학적 면모와 유교의 보수적 면모를 함께 지니고 있었던 유학자다. 자연을 대하는 자세는 유교의 요산요수르 통해 심성을 함양하는 기본자세를 취하고 있고 자연경물에 대한 관찰력은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번암집의 시문을 보면 두드러진 특징은 명승지를 방문하고 그 소감을 시로 적은 것이 다수 나타난다. 당시는 차운(次韻)시가 대부분 이였으나 유명한 장소를 수행하며 대나 루, 정에서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다. 시의 전개 특징을 보면 첫귀절에서는 주변환경의 묘사가 나온다. 일례로 장안문루라는 시의 첫구에서 '단청도 아름다운 층 난간에 개인 날의 경치가 펼쳐지니' 인정전 앞에 첫 아침의 해 붉었는데, 이외에도 다른 시들에서 첫귀절을 살펴보면 '호수는 넓고 바람은 순하여 배는 나는 듯 돌아간다', '섬대의 연기띤 버드나무들 늦은 날에 정을 머금었는데', '저녁비 줄줄오고 산길은 어두운데' 등을 통해 보면 경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때와 분위기를 마치 읽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경관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잘 알고 있는 그의 능력이기도 하다. 또 글의 전개를 보면 지형지세를 설명하듯 지리정보를 풀어나가면서 수목, 건조물, 바위 등 지형지물까지 상세히 그 종류와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시 상황을 짐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유이원기(遊李園記)'라는 글에는 정자를 지을 때 원래의 자연을 훼손하고 좋은 나무를 구해다 심은 것을 보고 자연을 억류하여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의 시문은 시적 풍취나 감흥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주변경관 묘사, 경관의 가치와 관리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명승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알 수 있다.

3. 번암집의 명승학적 가치

명승학의 측면에서 채제공의 저술의 가치를 논하면 첫째, 명승을 문화가 깃든 자연환경으로 보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용재기'(浮蓉齋記)에 보면 영남의 여러 노선생들은 거의 모두 몸소 경치 좋은 곳을 점령하여 살면서 글읽고 학문하는 곳으로 삼고 사후에는 제사하는 곳이 된다. 그러한 땅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바둑을 벌여 놓은 것처럼 많다. 하늘이 명승지지를 마련한 것은 그 사람을 사치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그 사람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명승이 또한 스스로 나타나지는 못한다. 이것은 서로 기다려서 이루어지는 이치이다.

이 내용은 당시 명승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며 오늘날 명승의 개념 또한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명승의 정의의 하나로 가치가 높다. 둘째, 그의 저작들에서 보여지는 산문적 형식은 당시 경관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가치가 높다. 글의 전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주변의 지형지세를 언급한 후 각 요소를 언급하고 필자의 소견을 평가하듯 기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당시 이중환의 택리지의 기술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당대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채제공은 서울 보은동에 있었던 자신의 집 '매선당', 홍상서의 '견산루', 윤이중의 '분호정' 등 이제는 사라진 20여개소 정원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현재는 사라진 명승경관에 관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본 연구는 당대를 선도한 지배층 계급의 명승과 관련한 현상을 살필 수 있었다는 의의를 가지며 향후 이러한 문집류의 발굴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둔다.

■ 참 고 문 헌 ■

[1] 정치영,박정혜,김지현 2016, 조선의 명승, 한국학연구원 출판부
[2] 번암집 1978 이석호 번역, 대양서적